

한국 섬유산업과 노동시장, 1945~2004*

선재원**

요약

본 연구는 해방 후 최초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의 발흥, 성장, 조정과정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주력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을 확정짓는다는 장점과 더불어, 해방 후 약 60년간의 섬유산업 노동시장의 실태파악을 통해 자료의 제약으로 1960년대 이후밖에 파악할 수 없는 한국의 매크로 노동시장의 실태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흥기의 한국 섬유산업은 해방 직후 중지했던 운영을 재개하거나 신설을 통해 중소 규모 사업체가 다수 출현하고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은 초기에는 안정되지 않았지만 연중 입사와 퇴사 시기가 정착되는 형태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안정되어갔다. 성장기에는 먼저 설비운전물을 증가시켜 1960년대 후반 이후 고갈되기 시작한 노동력공급을 보충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둔화된 설비운전물 증가속도를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확대하였다. 섬유산업의 노동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숙사시설을 확장하고 수용인원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성장기를 거쳐 한국 섬유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체하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정은 이미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즉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던 구조조정정책이 제도화되고 종합화되었다. 구조조정정책은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고용승계의 의무화 등의 규제 조치도 동반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연구의 중요 과제중의 하나가 1987년 이후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1987년 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노사간의 실질임금타결 수준은 1987년 이전과 이후 모두 크게 웃돌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주제어〉 섬유산업, 라이프사이클, 노동시장, 노동력공급, 발흥, 성장, 조정, 구조조정, 혜택, 규제, 생산성, 임금

* 이 연구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KRF-332-2007-1-B00044).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방직협회 강진모 과장님과 평택대학교 도서관 장민숙 선생님, 자료정리에 수고한 이상미 조교, 유익한 코멘트를 제공한 산업사연구회 회원께 감사드린다.

**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sun@ptu.ac.kr, 031-659-8334.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방 후 최초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의 발흥, 성장, 조정과정에 따른 노동력의 공급형태의 변화와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한국의 다른 산업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은 각 기업의 재고보유량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Balasubramaniam and Karthik 2007). 기업의 재고보유량 기준에 기초한 연구는 발전정도가 다른 산업들의 비교에는 용이하지만 각 산업의 생산조건의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한 산업의 발전여부를 결정짓는 생산조건 특히 한 지역의 산업화 초기의 산업발전을 결정짓는 생산조건인 노동력을 기준으로 산업 라이프사이클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주력산업에 관한 라이프사이클을 확정짓는다는 장점과 더불어, 해방 후 약 60년간의 섬유산업 노동시장의 실태파악을 통해 자료의 제약으로 196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만 파악이 가능했던 한국의 매크로 노동시장의 실태분석(김동석 2004; 宣在源 2006)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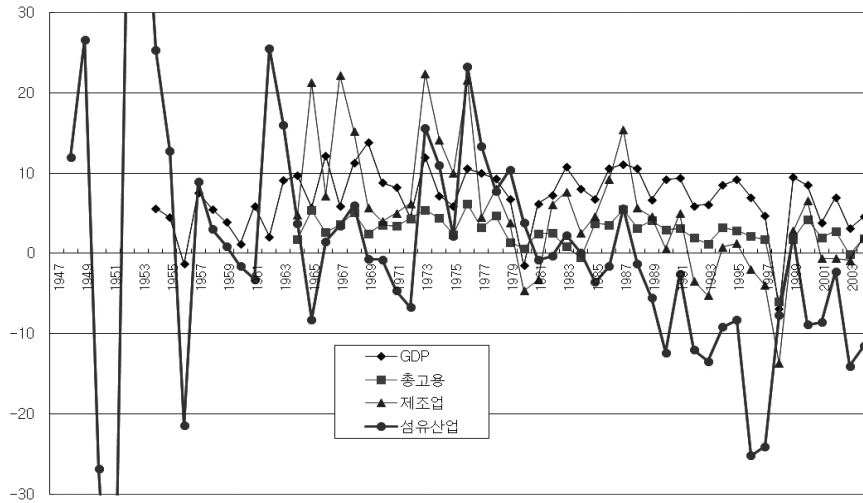
II. 산업 라이프사이클

본 장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고용과 제품, 즉 GDP, 총고용, 제조업과 비교한 고용증감률, 그리고 제품생산량과 고용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총고용 증감률은 1960년대 중반 이후 GDP 성장률과 대체적으로 연동하고 있다(그림 1). 제조업의 고용은 총고용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섬유산업 고용증가율은 1964년 이전에는 변동 폭이 컸고, 1964년 이후 2004년까지 제조업전체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낮았다. 그렇지만 1970년대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고용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섬유산업 제품생산량도 1980년대 후반에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그림 2). 면사(綿絲)생산량은 한국전쟁과 1950년대 후반 장기불황으로 1951년과 1961년에 감소했지만 1947년 이후 71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했다. 이후 생산량은 1971년과 1972년에 불황으로 감소하나 1980년까지 급속히 증가한 뒤, 1980년대는 정체하다가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혼방사(混紡絲)생산량은 확인되는 1965년 이후

〈그림 1〉 전년대비 연평균 고용증감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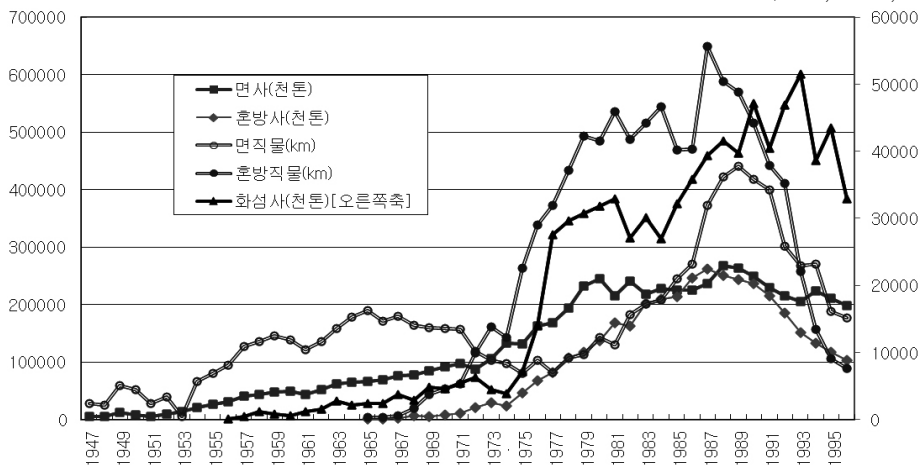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http://ecos.bok.or.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섬유연보」 각년도, 대한방직협회 내부자료.

주 : 1. 면방직공업 1951년(-57.7%), 52년(44.3%), 53년(53.5%).

2. GDP 1954~1970(1975년 기준), 1971~2004(2005년 기준).

〈그림 2〉 섬유산업 제품생산량

(단위 : 1,000톤,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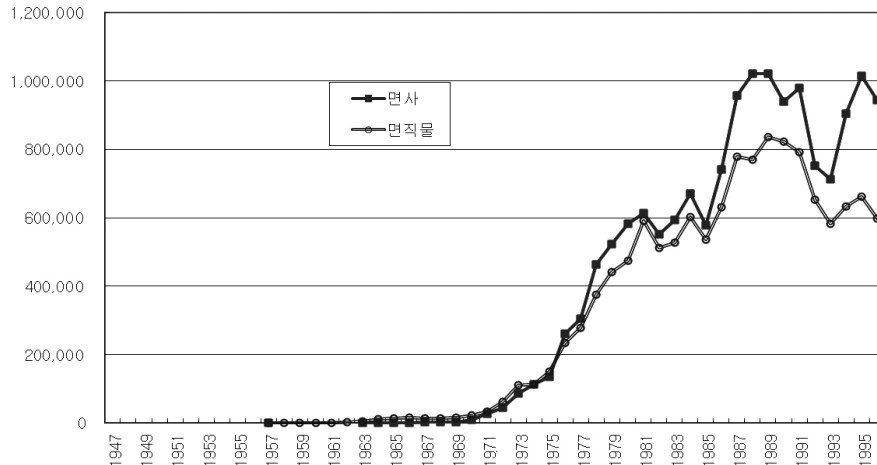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1974년을 제외하면 1987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한 뒤 감소하였다. 화섬사(化纖絲)생산량은 확인되는 1956년부터 1972년까지 증가추세이다가 1973년과 1974년의 감소에서

〈그림 3〉 섬유산업 수출액

(단위 : 1,000US\$)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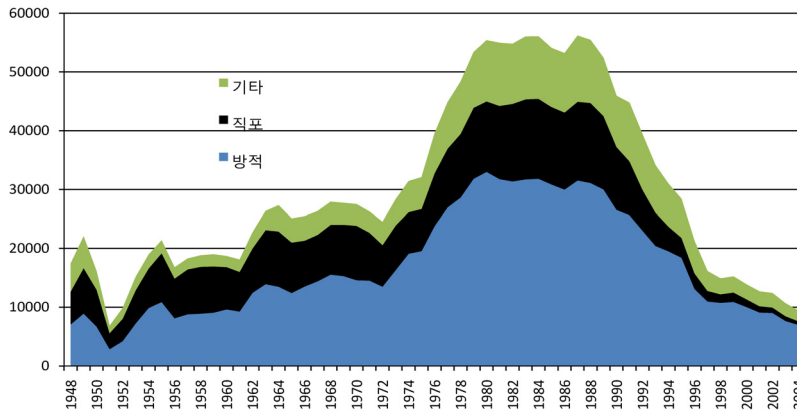
1970년대 후반의 급격한 증가에 이어 정점인 1993년까지 증가추세이었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생산량의 증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 추세였던 점이 면사와 혼방사의 생산량추이와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원사에 의해 생산된 직물의 생산량추이는 어떠했는가. 면직물(綿織物) 생산량 추이는 두 시기의 사이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이클은 1953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이고, 두 번째 사이클은 1977년부터 1990년대까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화섬사 생산량증가에 따른 혼방직물 생산량증가로 면직물의 수요가 감소하였다가, 면직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혼방직물(混紡織物)은 196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1975년 이후 화섬사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화섬사보다 이른 시기인 198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면직물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섬유산업 제품(면사, 면직물)의 수출액추이는 생산량 변화와 연동하였다(그림 3). 즉 197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정체한 뒤, 1980년대 후반기에 절정에 다다른다. 다만 면사 및 면직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에 감소의 속도가 약 1년간 늦추어졌다가 다시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반전의 폭이 컸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이 생산의 주체인 면사의 수출액 반전 폭이 중소기업이 생산의 주체인 면직물보다 컸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상대적으로 수출액이 적은 1970년대 이전에 수출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서문석 2009). 한편 섬유산업 전체 제품의 수출액은 1997년 현재까지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액에서의 비중도 현격

〈그림 4〉 섬유산업 부문별 재적인원

(단위 : 명)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직 50년사」, 대한방직협회 내부자료.

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즉 1970년 3.9억 달러, 38.7%, 1980년 50.1억 달러, 28.6%, 1990년 146.7억 달러, 22.6%, 1997년 183억 달러, 13.5%였다(김은정 1999, 66).

섬유산업의 총고용량(재적인원)은 1951년에 급감한 뒤에 1950년대 후반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4).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1950년대에 총고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재설비(戰災設備)의 복구 경험 등을 통해 이후의 양질의 노동력 공급에 공헌했다는 점이다(서문석 2010).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서서히 증가했다가, 1970년대에 급증하고 1980년대에 정체하다가 1987년을 정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중화학공업화시대로 불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섬유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컸다는 점이다. 섬유산업의 고용량은 1981년에 제조업의 26.5%에 해당하였고, 이후 절대고용량을 유지하다가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직후의 1988년에도 제조업의 13.8%를 유지했다.

이상에서 제품생산량과 고용량을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섬유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은 해방 후 1960년대까지의 발흥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성장기, 1990년대 이후의 조정기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III. 발흥(해방 후~1960년대)

1. 사업체수와 규모

먼저 일제말기와 비교한 발흥기 산업전체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표 1).

〈표 1〉 발흥기 전산업 사업체수와 고용자수 기준 사업체평균규모의 변화

(단위 : 업체, 명)

	사업체 수					사업체 평균규모(총고용자수/사업체수)				
	1943(1)	1943(2)	1948	1955	1962	1943(1)	1943(2)	1948	1955	1962
농/축/임/어업	10			558	1,010	45			25	28
광업	665	650	75	134	375	103	104	307	167	103
제조업	9,144	9,109	4,194	4,098	11,371	22	22	34	33	25
건설업	997	997	132	98	447	53	53	88	84	40
전기/가스/수도	70	70	59	81	257	43	43	61	119	35
상/금융/부동산	273	505	462	456	1,689	27	35	37	30	17
운수/보관/통신	747	740	482	732	1,319	46	46	54	48	39
서비스	165			327	6,249	45			16	16
계	12,071	12,071	5,404	6,484	22,717	31	31	41	38	24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결과보고”, 1943년판; 남조선과도정부노동부통계실, “남조선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 1948년판;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5~1957합병호; 보건사회부, “사업장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62년판.

주 : 1. 조사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체.

2. (1)은 소분류재구성, (2)는 중분류재구성.

사업체수가 발흥기 초기에는 일제말기의 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그 후 증가하여 1960년대 초에는 일제말기의 두 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증가는 서비스업, 상업/금융/부동산업, 운수/보관/통신업 등의 제3차 산업의 기여가 컸지만, 제조업의 양적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1962년에 일제말기의 사업체수를 상회하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체수의 증가는 규모의 증가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발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사업체 절대수의 증가가 두드러진 제조업 가운데 섬유/의복/가죽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표 2). 1962년 기준 섬유업, 의복업, 가죽업의 사업체수는 각각 1,996업체, 761업체, 59업체였고 고용자수는 각각 87,697명, 11,575명, 5,516명이었다. 따라서 섬유/의복/가죽업의 동향을 섬유산업의 동향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일제말기 1943년을 소분류와 중분류로 재구성한 것은 해방 후의 통계와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즉 중분류를 기준으로 집계된 1948년 자료와 소분류를 기준으로 집계된 1955년 이후 자료와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분류와 소분류를 기준으로 재구성이 가능한 1943년 자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948년의 섬유/의복/가죽업 사업체수는 일제말기와 비교하여 1/3수준이었으나 1955년에는 1948년 대비 64%, 1962년에는 1955년 대비 316% 증가하였다. 물론 고용자수를 기준으로 한 섬유/의복/가죽업 사업체 평균규모가 1948년, 1955년, 1962년에 계속해서

〈표 2〉 발흥기 제조업 사업체수와 고용자수 기준 사업체평균규모의 변화

(단위 : 업체, 명)

	사업체 수					사업체 평균규모(총고용자수/사업체수)				
	1943(1)	1943(2)	1948	1955	1962	1943(1)	1943(2)	1948	1955	1962
음식료/담배	1,704	1,704	781	1,081	2,032	12	12	25	26	16
섬유/의복/가죽	1,810	1,683	541	889	2,816	36	36	68	58	37
제재/나무제품/가구	1,359	1,359	493	306	693	11	11	22	14	1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	757	420	228	235	841	16	18	27	30	23
화학/석탄/고무제품	410	681	532	672	1,658	45	34	48	30	25
비금속광물제품	1,283	1,283	416	229	752	16	16	21	32	22
제1차금속	416	416	414	112	409	30	30	26	20	28
금속제품/기계/장비	944	944	637	488	1,858	29	29	30	27	21
기타제품	426	619	152	87	312	19	20	30	29	19
계	9,109	9,109	4,194	4,098	11,371	22	22	34	33	25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결과보고”, 1943년판; 남조선과도정부노동부통계실, “남조선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 1948년판;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5~1957합병호; 보건사회부, “사업장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62년판.

주 : 1. 조사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체.

2. (1)은 소분류재구성, (2)는 중분류재구성.

축소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축소된 1962년의 수준이 일제말기의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이 시기를 섬유산업 발흥의 시대, 즉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을 중단했다가 이후 서서히 운영을 재개했거나 새로운 소규모사업체가 신설된 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중소직물업에 관한 분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류상윤 2009, 149-153). 이러한 섬유산업 소규모사업체의 발흥은 조정기의 사업체 소규모화와 대비되어 흥미롭다(박양춘·김은정 200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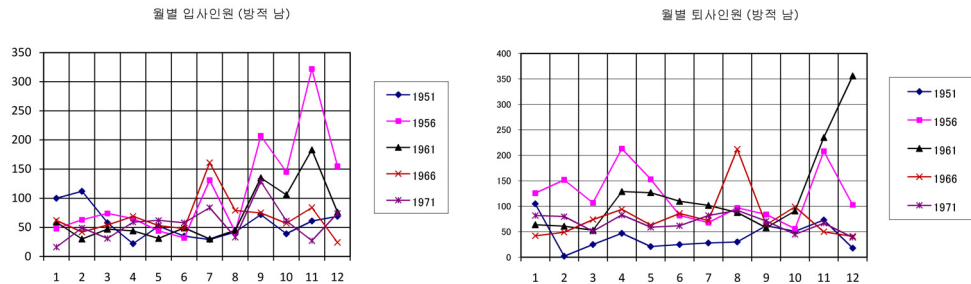
2. 월별 입퇴사

발흥기 섬유산업의 노동시장은 안정되고 있었을까? 연간 채용과 퇴사시기의 정착을 안정된 노동시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섬유산업 남자노동자의 입사는 1956년과 1961년에 11월에 집중되었으나 1966년과 1971년에는 7월에 집중되었다(그림 5). 섬유산업 남자노동자의 퇴사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연도에서 다른 달에 비해 4월과 10~11월에 높은 비중이었다. 섬유산업 여자노동자의 입사는 1961년까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다가, 1966년부터 전반기 즉 4월부터 8월까지 증가하다가 하반기 즉 8월부터 12월까지 감

〈그림 5〉 섬유산업 발흥기 남자 월별 입퇴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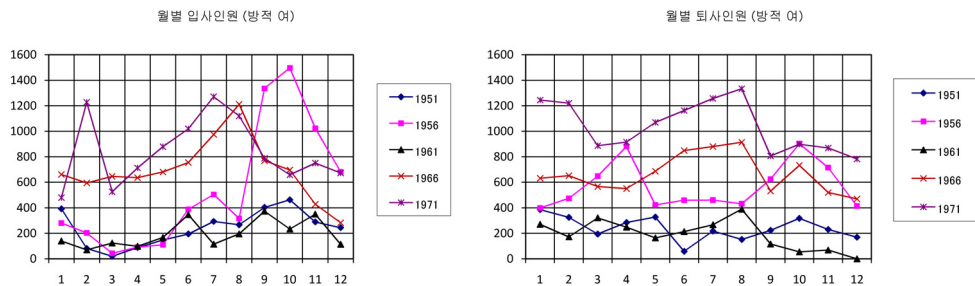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그림 6〉 섬유산업 발흥기 여자 월별 입퇴사 현황

(단위 : 명)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소하는 패턴을 보였다(그림 6). 섬유산업 여자노동자의 퇴사는 1961년까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다가, 1966년부터 1, 2월 감소, 3, 4월 정체, 5월부터 8월까지 증가, 9월 감소하였다가 10월에서 12월까지 감소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발흥기 섬유산업 노동시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입사와 퇴사의 시기가 7~8월에 집중되는 형태로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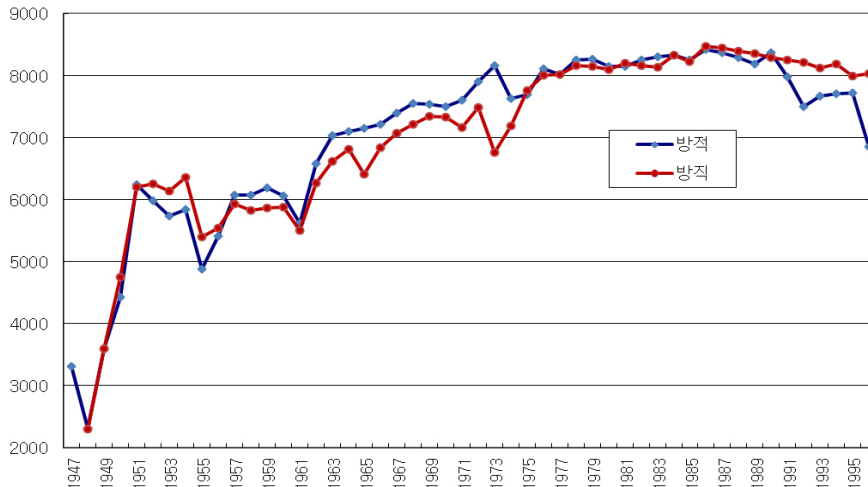
IV. 성장(1970년대~1980년대 중반)

1. 설비운전률 향상

성장기 한국 섬유산업의 최대과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농촌의 무제한적 노동력공급의 고갈을 해소하는 것이었다(배무기 1982).

〈그림 7〉 섬유산업 연간 추당 운전시간

(단위 : 시간)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직 50년사」.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 섬유산업은 1970년대에 제품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을 급격하게 확대시켰다. 그렇지만 당시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모집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박영기 1981, 28). 즉 경성방직 생산직 여종업원의 모집응모율이 1960년대에 약 300%였던 것이 75년에는 10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고, 충남방직의 경우에는 100% 이하였다. 따라서 성장기에는 노동력공급만으로도 충당하지 못하여 설비운전률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연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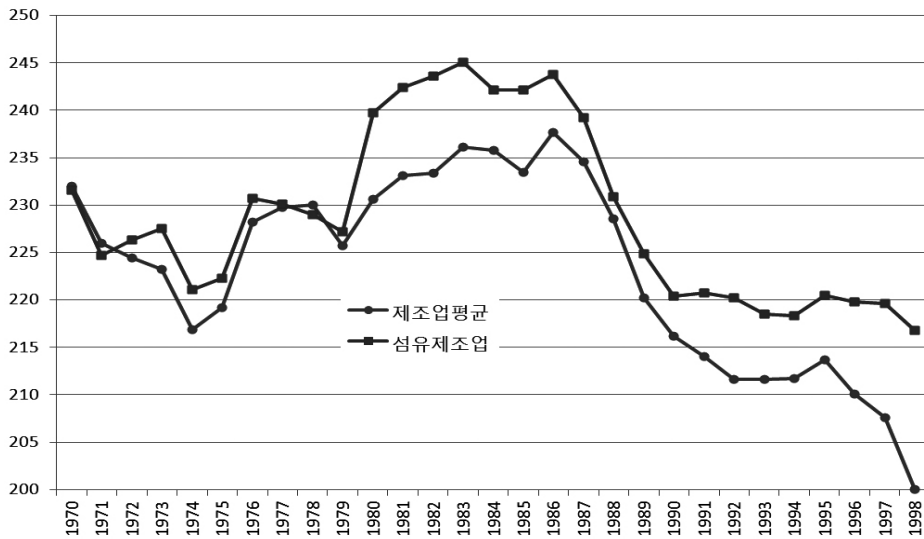
방직 및 방직설비의 운전률(추당연간운전률)은 제품생산량의 추이(그림 2)와 연동하여 1948년부터 1951년까지 급증하였고, 195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한 뒤 1960년대 초반에 감소했다(그림 7). 1960년대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1970년대 전반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서서히 증가한 뒤에 1986년 이후 감소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960년대의 높은 증가율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 섬유산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설비운전률의 증가만으로 노동력의 공급부족을 메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2. 노동시간 확대

노동력공급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노동시간의 확대이다(그림 8). 한국 섬유산업(섬유제조업)의 노동시간은 1970년대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1980년부

〈그림 8〉 섬유제조업 및 제조업평균 월 노동시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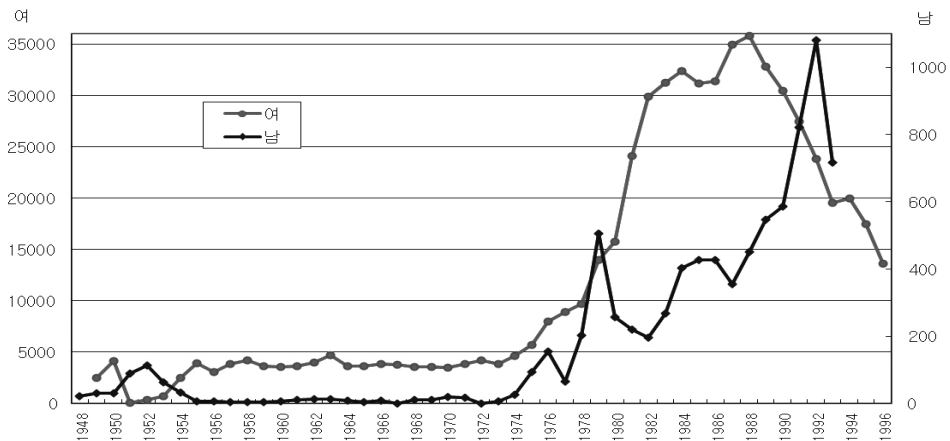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주 : 본문참조.

〈그림 9〉 섬유산업 남녀 기숙사 인원

(단위 : 명)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터 상승하여 1986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섬유산업이 1970년대 이후 설비운전력의 증가로 매우지 못했던 노동력 공급부족을 노동시간의 확대로 보충하려했던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확대는 각 회사의 기숙사 시설확대와 수용인원증가로 가능했다(그림 9). 즉 섬유산업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1970년대부터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는 급증했다. 한편 남성노동자의 기숙사 수용인원은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후술하듯이 남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수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이지만 설비의 대체에 따라 여성노동자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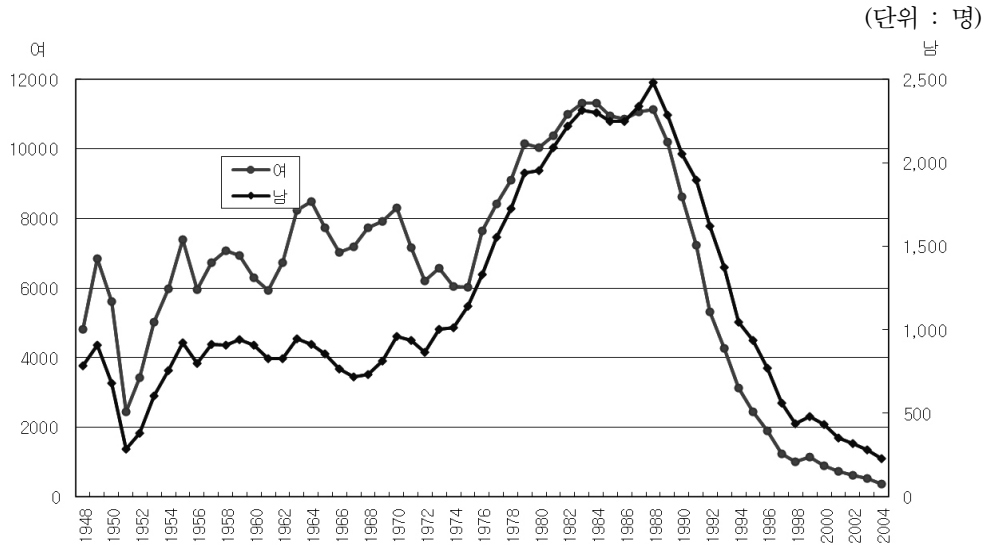
V. 조정(1980년대 중반 이후)

1. 구조조정

한국의 섬유산업은 이상과 같은 성장기를 경험했으나 그 이후에는 산업구조조정을 거쳐야하는 곤란에 직면하였다. 한국 섬유산업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생산량과 수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대 후반에 절정에 다다르게 되나(그림 2), (그림 3)), 1970년대 GDP 성장을 하락에 따라 1970년대 후반기부터 고용량은 정체하고(그림 4), 고용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했다(그림 1). 여기에서 고용증가율 감소의 의미를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 노동량을 나타내는 노동유발계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자(홍문신·최장호 1986, 150-152). 섬유사와 직물의 노동유발계수가 1975년에서 1980년에 각각 0.56, 0.86에서 0.14, 0.20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정책 즉 산업합리화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홍문신·최장호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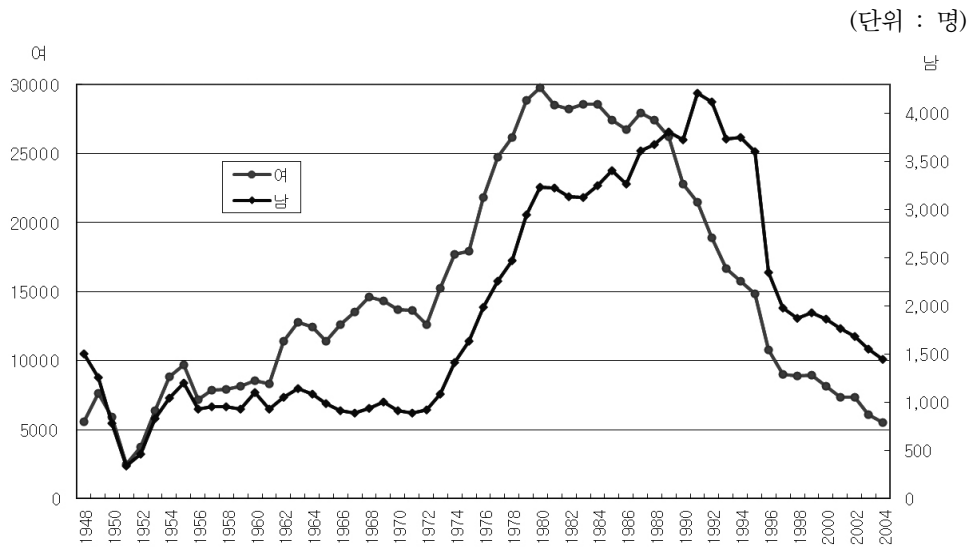
섬유산업의 산업합리화정책은 1980년대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섬유공업합리화안’(1966년 7월)을 수정하여 제정한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1967년)은 섬유공업시설로 등록된 시설의 전용을 금지하는 등록제를 운영하여 새로운 설비투자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려 한 것이다(이상철 1997, 103-118). 이러한 섬유산업의 합리화정책은 이후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1980년)에 의한 설비개선에 의해 계승되었고(윤창호 1985, 20-23), ‘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1981년)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1985년)하여 산업합리화 업종 또는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통폐합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차동세·김광석 편 1995, 336; 한국경제개발원 1995, 409-412, 453, 473-475). 이후 ‘섬유공업시설에 임시조치법’ 등의 개별법을 폐지하고 단일법률체계인 ‘공업발전법’을 제정(1986년)하여, 생산기술 향상과 설비개선을 통해 생산성향상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업종에 대해 합리화를 시행

〈그림 10〉 직포업 재적인원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대한방직협회 내부자료.

〈그림 11〉 방직업 재적인원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대한방직협회 내부자료.

했다.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지정기간은 1986년 7월 16일부터 1989년 6월 30일까지였고, 직포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1986년 7월이었다(대한방직협회 1997, 224-226).

직포업의 재적인원은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3년 뒤부터 남녀 모두 급격하게 감소했다(그림 10). 직포업과 비교하여 규모가 큰 방직업의 여자 재적인원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그림 11). 한편 방직업의 남자 재적인원은 여자가 감소하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새로운 설비투자에 따라 여자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하고 남자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 고용승계

이 시기에 구조조정 정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조세감면 등의 혜택만이 아니라 ‘고용승계 의무화’라는 규제조치에 의한 영향이 컸다(한국경제개발원 1995, 459-461). 즉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문제 예방’ 조치로 구조조정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용문제를 반영하도록 양도자와 인수자 계약 양당사자에게 권고하고 설득하여, 계약내용에 ‘고용승계규정’과 ‘각종 금품청산책임’의 한계를 명시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는 정리기업의 인수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고용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노동부에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인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불응할 때는 부당해고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한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과 재취업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VI. 생산성과 임금

한국 섬유산업 사이클과 관련하여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다행히도 「방협 50년사」 통계편의 자료를 통해 해방 직후부터 추계가 가능하다. 면사, 화섬사, 혼방사를 포함하는 섬유산업의 제품생산량은 그림2에서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화섬사의 생산량은 1956년부터 혼방사의 생산량은 1965년부터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추계의 장점은 한 산업의 연간 노동력투입량(작업인원 누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섬유산업의 실질임금은 섬유제조업 명목임금총액(『노동통계연감』)을 물가지수(한국은행 <http://ecos.bok.or.kr>)로 나누어 계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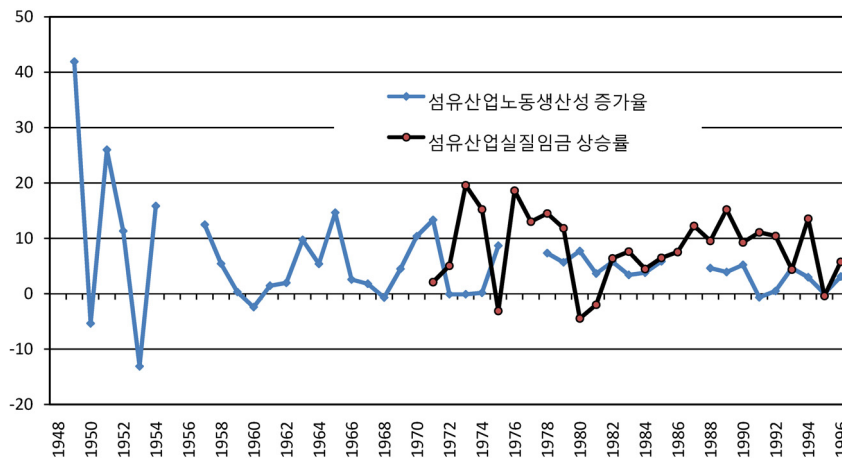
섬유산업 전년대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50년 면사생산량의 감소, 1953

년 면직물생산량의 감소를 반영하여 감소하였고, 1950년대 후반에는 면직물과 면사 생산량의 감소를 반영하여 감소하였다(그림 12). 1960년대 전반에는 면직물생산량의 빠른 증가와 면사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반영되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고, 1960년대 후반에는 면직물생산량의 감소가 반영되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였다. 1969~1971년은 면사 및 화섬사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화섬사와 면직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감소했다. 1970년대 중반에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나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실질임금상승률은 성장기인 1970년대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돌다가 불황기인 1980년대 초에 밀돌았다. 1980년대 전반에는 두 수치가 비슷한 수준이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섬유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발흥기 초기에 변화가 심하다가 1970년대 전반 이후 서서히 감소한 반면에, 섬유산업 실질임금 상승률은 성장기와 노동운동이 고양된 1987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석·이진면·김민수(2002)의 추계에 기초하여 1987년 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박덕제(2005)와 부합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기성·안주엽(2004)은 김동석·이진면·김민수(2002)의 추계를 새롭게 해석하여 먼저 1963~2000년 동안 실질임금 상승률과 한계노동생산성 증가률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198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전에

〈그림 12〉 섬유산업 전년대비 연평균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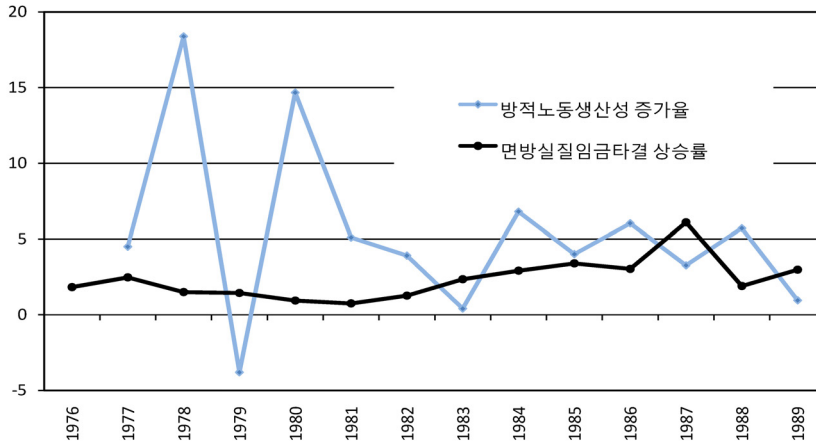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한국은행(<http://ecos.bok.or.kr>).

주 : 본문참조.

〈그림 13〉 섬유산업 전년대비 방적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면방실질임금타결 상승률

(단위 : %)



자료 : 대한방직협회(1997), 「방협 50년사」.

주 : 본문참조.

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못 미치나 이후에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두 수치의 차이(실질임금 상승률-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가 1963~1986년에는 -5.2%이고 1987~2000년에는 2.6%였다는 추계를 근거로, 1987년 이후의 실질임금 상승이 노동 수요곡선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년대비 방적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성장기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면방업계의 노사간의 전년대비 실질임금타결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조정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과 부합한다(그림 13).

VII. 맺는 말

한국 섬유산업은 생산액, 수출액, 고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발흥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성장기, 그 이후를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발흥기의 한국 섬유산업은 해방 직후 중지했던 운영을 재개하거나 신설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체가 다수 출현하고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은 초기에는 안정되지 않았지만 연중 입사와 퇴사 시기가 정착되는 형태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안정되어갔다. 성장기에는 먼저 설비운전률을 증가시켜 1960년대 후반 이

후 고갈되기 시작한 노동력공급을 보충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는 둔화된 설비운전률 증가속도를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확대하였다. 섬유산업의 노동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숙사시설을 확장하고 수용인원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성장기를 거쳐 한국 섬유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체하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은 이미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즉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던 구조조정정책이 제도화되고 종합화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구조조정정책이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고용승계의 의무화 등의 규제조치도 동반하였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시장연구의 중요 과제중의 하나가 1987년 이후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박기성·안주엽(2004)은 1987년 이후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웃돌았다는 종래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지만, 수요곡선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도 1987년 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노사간의 실질임금타결 수준은 1987년 이전과 이후 모두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박기성·안주엽(2004)의 주장과 부합하는 결론을 얻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결과보고”, 1943년판.
- 남조선과도정부노동부통계실, “남조선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 1948년판.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5~1957, 합병호.
- _____, “사업장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62년판.
-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 대한방직협회, 1997, “방협 50년사”.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 대한방직협회 내부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한국은행(<http://ecos.bok.or.kr>).
- 김동석 · 이진면 · 김민수, 200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 : 1963~2000”,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석, 2004,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한국경제구조변화와 고용창출, 한국경제연구원: 79-161.
- 김은정, 1999, “한국섬유산업의 재구조화 (I) :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리학논구」, 제19호: 62-72.
- 류상윤, 2009, “고도성장기 이전 한국 중소직물업의 전개과정, 1910~1960”,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 박기성 · 안주엽, 2004, “임금과 생산성”,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165-179.
- 박덕제, 2005,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출판: 463-492.
- 박양춘 · 김은정, 2001, “한국섬유산업의 재구조화 (II)”, 「지리학논구」, 제21호: 1-21.
- 박영기, 1981, “노사관계사례연구(섬유산업부문 I)”, 한국개발연구원.
- 배무기, 1982, “한국노동경제의 구조변화”, 서울대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21권 제4호: 571-621.
- 서문석, 2009, “해방 이후 한국 면방직산업의 수출체제 형성”, 「경영사학」, 제24집 제2호: 137-162.
- _____, 2010, “1950년대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기술인력 연구”, 「경영사학」, 제25집 제4호: 385-407.
- 윤창호, 1985,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총서」, 한국경제연구원.
- 이상철, 1997, “한국화학섬유산업의 전개과정, 1961~1979 : 산업정책의 일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 차동세·김광석 편, 1995,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경제개발원, 1995, “한국경제 반세기 :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 홍문신·최장호, 1986, “섬유산업의 구조와 정책”, 산업연구원.
- 宣在源, 2006, “韓国における労働市場の変化と経済危機—長期的観点からの分析(1963~2005)—”,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570: 1-11.
- Balasubramaniam, Karthik, 2007,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and the Industry Lifecycle”, Ph. D.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Textile Industry and Labor Market in Korea, 1945~2004

Jae-Won Su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textile industry and its labor market after 1945 in Korea.

First, many small companies emerged as a new or renewal and disappeared during the rising era of textile industry in Korea. The labor market was not stabilized in initial era of rising but the month of entrance and retirement was fixed and it became steady after the mid of 1960s.

Second, the textile companies increased the ratio of machine operation in order to compensate the shortage of labor force supply after 1960s as an initial era of the growth period. After 1970s, the textile companies increased working hours to replace the slowdown of machine operation's ratio. The working time expanded until 1980s and the textile companies constructed dormitory for employees to maintain the enlargement of working time.

Third, the textile industry of Korea should to adjust since the growth rate declined after the mid of 1980s. The restructuring policy, which already launched before 1980s separately, became institutionalization and synthesis. The Korean government not only supplied the benefit of tax reduction for merged company resulted from restructuring but regulated to keep the rule of employment succession for merged companies' employee.

In textile industry's labor market in Korea, the increasing rate of real wage was higher than the increasing rate of labor productivity after 1987 which was the year of starting point of labor movement. But the agreement level for wage increase between company and employee was lower or a little bit of higher than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increasing rate.

〈Key Words〉 Textile Industry, Life-cycle, Labor Market, Labor Force Supply, Rise, Growth, Adjustment, Restructuring, Benefit, Regulation, Productivity, Wag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Pyongtaek University.